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43호
3월 28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11회 임원회

코로나19 빠른 극복 위해 기도

제68-5회 실행위원회 4월 27일(월)로 변경 개최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1회 임원회가 지난 3월 17일(목) 오전 11시 창조교회(원로 양은래 목사, 담임 변원식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의 회복과 안정,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계 김건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기도, 서기 정영

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전 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촉구했다.

정영진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제로 열린 회의는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정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타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2020년도 목사고시,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20학년도 교단 사이버신학연구원, 목회대학원 개강, 새야수 은혜와진리교회와 은혜중앙교회 담임교역자가 황용연 목사에서 김갑신 목사로, 흥현철 목사(소천)에서 서수영 전도사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출입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 소천 보고 건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가타사항으로 5월 18일(월) 개최될 제69차 정기총회 준비사항 점검,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제29차 필리핀 정기지방회 지원요청,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변경 개최 건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오는 4월 27일(월)로 연기하여 개최됨에 따라 일정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대구경북 및 지역교회 방역 봉사

안디옥교회 교역자들로 방역팀 꾸려 헌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지속지원회 안디옥교회(담임 배진기 목사·교단 증경총회장)는 코로나 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지방회 신하 교회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교회 부교역자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교회 내 외부를 방역으로 봉사하며 아름다운 섬김을 실시했다.

농어촌교회들은 방역기(살포기)와 약품구입도

어려워 방역에 고충이 있었는데 안디옥교회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주일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집중적으로 계속 방역을 해나가기로 했다.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통해 대구 경북 및 지역교회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얻고 있다.



‘내버려둔 사람들’



조용목 목사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롬 1:19~32)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특히 전쟁 피난길에 부모가 죽든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무리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이런 비극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일생 동안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은 사물을 관찰하고 실험하여 이치를 알아내며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이성을 통하여 사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만이 아니라 양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관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는 머리 위의 별들과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본성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녀가 짝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동성애라는 성도착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정신적인 황폐와 육체적인 질병 등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계속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

최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수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求償權-정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교회에 요구하겠다는 것)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회에 청구한다는 것이 왜 말인가? 그럼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신천지가 수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그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지만, 국가에서 그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더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대통령은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아버지가 있겠는가?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요, 논리이다. 지금 교회들은 국가에서 하는 방역과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보다도 더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피가 마르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배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전교 135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한 적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는 흠이 있어 기다기도 ‘집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70%의 미지립 상태의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를 무조건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경에 ‘인심하리라’는 말과 함께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것이라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 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각 언론들은 마치 교회에서 엄청난 감염과 확진자라도 나올 것처럼 주장하지만, 교회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없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한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무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상,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교회는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큰 일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협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 아니다

한국교회연합, 공권력의 교회 예배 강제금지 우려와 유감 표명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강행한 교회 13곳에 대해 주일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필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나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교회 교인 집단감염 사태는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전국의 병원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병과 싸우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혹여 이 같은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 마스크쓰기와 같은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각 교회들이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작은 규모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등

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 처지와 여건은 도의 시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고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6만여 한국교회는 지금도 만에 하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게 돼 선교의 분이 닫히는 결과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교회 스스로의 이러한 노력을 불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예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즉 주일예배를 강행하고, 교인들이 예배시 100%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등을 문제삼아 내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부과와 그레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교회를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권고 사항이라 할 수 있는지, '마스크 5부제' 등

현실 여건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여타의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교회에만 지나치게 과도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관공서는 물론 극장, 공연장, 쇼핑몰, 카페, 클럽 등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개인 SNS에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예배를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를 든 것을 보았는데, 독일의 경우 종교집회 말고도 모든 가게(shops), 쇼핑몰(malls), 바(bars), 클럽,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동물원, 카지노, 경기장, 헬스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폐쇄한 것을 알고 있겠다.

교회의 주일 공예배는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 생령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본질의 문제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사랑의 빨간밥차, 대체급식 진행

어려운 상황 하루빨리 종식 되어야

하루에 한 끼 무료급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쪽방촌 노인들과 노숙인들, 독거노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구)는 대체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동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빨

간밥차'는 지난 13여 년간 여러 지역에서 울역, 부평역광장, 주안역광장, 서구, 계양구)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300~400명에게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 바이러스가 왔을 때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체급식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초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을 중단 할 수밖에

에 없는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하루 한 끼 '사랑의 빨간밥차'의 무료급식으로 살아가는 하기진 노약자 분들을 외면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오는 대로 줄을 세워 대체급식(주먹밥, 국물, 빵, 두유)을 제공했으나 감염을 우려해 많은 분들을 줄 세울 수가 없어 대체급식(쌀과 라면, 전제란, 두유, 빵, 백설기떡 등을 개별적으로 한 봉지씩 포장해서 집에 가서 드시도록 나눠 주고 있다.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는 “빨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종식돼서 지난 13년 동안 해왔듯이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매일 300~400명씩 단체급식으로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어렵고 소외된 노숙인, 홀몸노인, 쪽방촌거주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CTS-TV, 대구경북지역 후원금 전달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위해

CTS기독교TV(이하 CTS)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사)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영일 목사, 이하 대기총)에 후원금 5천만원을 지난 3월 10일(화), 대구범어교회에서 전달했다.

대기총 사무총장 조부제 장로 진행으로 시작된 전달식은 CTS 고장원 사장과 CTS N 최현택 사장이 직접 대구시를 직접 방문해 대기총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다.

장영일 목사는 “대구·경북지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 예배가 3주



째 중지됐으며, 미자립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성금을 보내주신 CTS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고장원 사장(CTS)은 “예수

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며, 하루 빨리 대구·경북지역 교회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교회 예배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무분별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법칙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부활절연합예배 예정대로 진행

규모는 축소하되 부활의 의미 강조해 실시

2020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금) 오전 8시 30분에 출범예배를 드리고 오는 4월 12일 열릴 부활절연합예배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지만, 부활절 예배만큼은 결코 취소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모이는 만큼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해,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0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준비위원장 최우식 목사)는 지난 3월 13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준비위를 출범하고, 급변 부활절연합예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부활절연합예배가 제 때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준비위는 부활절 당일에 드려야 하는 예배를 연기할 수 없다는 기본 방



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집회로 열렸던 부활절연합예배를 급변에는 각 교단에서 10명만 참여하는 소형 집회로 바꾸고 참여교단은 약 70개로, 스템을 포함한 참석인원은 7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예정대로 오는 4월 12일 부활절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 새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다 염려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각 교단에서 초청받은 10여 명씩만 참석키로 했다”면서 “비록 규모는 많이 축소됐지만, 내용은 보다 더 진지하게 부활의 의미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WBH, 대구시민들 코로나19 극복 물품 지원

큐푸녹차세정수 3천만원 상당 세계성시화운동에 전달

국제부티구호개발 NGO 씨월드부티웁츠(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티)는 3월 19일(목) 오전 11시 종로구 대호빌딩(김상옥로 17)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세정수 전달식”을 김수현의 머리좋은사람들(대표 김수현)의 후원을 받아 3000만원 상당의 큐푸녹차세정수 2016개를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장현일 이사장(신생명나무교회 목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고자 코로나19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손소독제 천연큐푸녹차세정수를 대구지역 교회와 병원에 지원하게 되었다.”며 “씨월드

부티웁츠는 그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왔는데, 손세정제 지원으로 대구 교회들과 병원 의료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월드부티웁츠를 통해 대구 시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용태 대표회장은 “국제부티구호개발 NGO인 (사)월드부티웁츠와 김수현 머리좋은사람 기관에서 고통 속에 있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사랑의 손 섬김의 손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여 주신 두 기관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시화운동의 모토는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대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혈액부족현상 심각 한혈행사 적극 참여

감리회 본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리더십의 모습 나타나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 3월 13일(금)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본부 앞 한혈버스에서 한혈행사가 진행됐다.

감리회 본부가 주관한 한혈행사에 감리회 감독들과 평신도 단체 그리고 동 본부 직원 등 약 110여 명이 동참했다. 이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약 20명이 한혈 적적판정을 받아 한혈했다. 오후에도 직원들의 참여가 계속되면서 본부의 전체 한혈인원은 약 40~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혈액원 관계자는 사전 문진을 통해 최근 한 달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약물



을 복용중이거나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경우, 특정 지병이 있는 경우 등은 한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한혈 적적율은 50%대로 알려졌다.

문진을 통해 한혈 적적판정을 받아 기뻐하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헌신을 통해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한혈행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경계

무장괴한들, 교회 난입해 목회자 등 24명 살해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함께 사역하는 Voice of the Martyrs Korea(대표 폴리 현숙)이 한

국(VOM)은 지난 2월 16일(주일), 무장 괴한들이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판시

(Pans) 마을 한 교회에 난입하여 24명을 살해하고 최소 1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교회에 난입한 무장 괴한들은 현지인과 외국인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킨 다음, 그 교회 목회자를 포함한 현지인 남성들을 살해했다.

무장 괴한들은 예배당에 불을 지른 뒤에 마을에 있는 상점들을 약탈했고, 납치한 어린이 세명을 시켜 약탈한 물건을 나르게 했다. 마을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인근의 세바(Seba) 마을로 도피했지만 무장 괴한들은 그 마을도 공격했다.



네팔선교지(치트완, 은혜와진리교회) 소식

할렐루야! 저희를 이곳 네팔에 보내시고 선교사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당회장 조 목사님께, 세계선교연합회 회원과 성도님들에게 주안에서 분안인사 드립니다.

네팔 은혜와진리교회에서는 지난 번 성탄절예배와 송구영신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은혜와진리교회와 동시예배로 드렸습니다.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해 저희 부부와 교인 모두 큰 은혜를 받고 2020년 새해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희망을 품고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성탄절에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에 출석했던 '니짜' 성도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주민과 교회당 건축일을 하는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주며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1월 첫 주에 비자 신청을 위해 수도 카트만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한 면접관을 만나 결혼비자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고 저희가 바라던 대로 1년간 비자 연장을 받았습니다.(네팔에서는 비자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셨고 힘든 길을 가고 오는 동안 몇 차례 큰 사고의 위험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고 완공을 앞둔 교회당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지붕 공사와 함께 주랑과 타일, 페인트 공사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과 세계선교연합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①저희가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고 항상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교회당 완공까지 마지막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하나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 관공서 등 여기저기를 바쁘게 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③네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네팔 치트완에서 대우자 비록 목사,
심은숙 전도사 올림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라지방교회 정기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 제69차 정기지방회가 지난 3월 17일(화)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 예배는 총무 유응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牧사는 히 2:14-18 말씀을 본문으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시험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심으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내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교단을 위해, 지방회 신하 각 교회의 부흥과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증경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의장 백영자 목사 주재로 열린 지방회 회의는 배용환 목사의 기도으로 시



작되어 서기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백영자 목사의 개회 선언 후 총무보고로 이어졌다.

회계 보고에서는 68차 기간 동안의 수입 보고와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69차 임원선출에서는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 총무 유응근 목사, 서기 회계 이태우 목사가 그대로 유임하기로 결의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주 안에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양신문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 후
'목양신문 보기' 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서울광장 쿼어축제 승인 반대 성명서

코로나19 사태 속 서울광장 쿼어축제 승인, 방역 역행·친동성애 서울시 강력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3월 24일(화) 코로나 사태 속에 서울광장 쿼어축제를 승인하려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돌입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와 대학교까지 개학을 미루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뿐 아니라 종교 행사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열린 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6월 쿼어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문화분 집회를 강력 통제했던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결정이다.

에이즈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최근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매년 에이즈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갈 청년·청소년 세대의 에이즈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에 2명이던 15~19세 남성 감염인 수가 2017년 30명, 2018년 19명으로 10~15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15명이던 20~24세 남성 감염인 수가 2017년 151명, 2018년 114명으로 8~10배 증가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있어서 동성간 성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고, 젊은 층에서는 70%가 넘고, 특히 10대는 93%이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94~95%가 동성애로 결리고 있으며, 중국 청년 에이즈 감염 80% 이상이 동성애 때

문이다. 동성애가 윤리도덕의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보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건강한 사회문화 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이 올리는 쿼어행사 반대 청원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편향된 친동성애 행보를 일관해왔다.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쿼어 행사 실태는 음란과 퇴폐 그 자체였다. 결코 일반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길만한 문화축제의 성격이 아니었다. 부스마다 '섹스가 좋아' 등 음란한 용어들이 난무했고, 남성 동성애 영상물 상영은 물론 카피페이드 차량 위에서는 성인나이트클럽이나 게이 바에서 연출된 듯한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쿼어 행사에 참가한 동성애자들은 바비리맨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과 일탈행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렇듯 음란한 성문화를 홍보·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 쿼어행사를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옹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 이념에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문화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고 헌법 제9조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미풍양속에 입각한 건강한 성윤리 의식과 남녀평등 개념을 계승·발전시켜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공장소의 쿼어 행사를 원하지 않는다. 201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9%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

다고 답변을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쿼어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민주시민사회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시민광장은 이름 그대로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유익할 때 하기에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와 "자녀라는 자녀 세대에게 건전한 풍토를 물려주기를 바란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함오와 차별로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점을 덮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현 시국에 고통 받는 감염인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여름 지나 가을에 다시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본분을 망각한 채 친동성애 특혜를 결정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심장고도 같은 서울시를 건강하게 보전·계승할 책무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6월 쿼어 행사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24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위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작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

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당자는 제출자의 입회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후보 등록 가·부를 후보자 명부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 회원에게 공지한다.
5.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 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임원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후보자는

는 600만원, 총무 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액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총회 시 속사,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부터 정지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1.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2. 안수 증명서(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3.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4.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5. 명함한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6.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7.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8.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10.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11. 가족관계 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20. 3. 31(화)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민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강태진 목사
(010-3511-938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강 태 진

생명의 말씀



김상웅 목사

· 예하성 중경총회장
· (사)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역임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처량한 신체가 되었음에도 지도자가 되었고,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뛰어난 지혜자, 지도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1.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히 10:38)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영웅들은 해례가 많아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패망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목표를 세웠다는 것으로, 그것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한 것과 왕이 마시는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음식으로(레

11:2-8) 부정한 동물 고기나(레 11:10-12)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호 9:3, 고전 10:27-29)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께 속한다는 뜻이 되듯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에게 속한다는 뜻이 되기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개인을 망하게도 하는 우상을 섬겼던 제물과 술을 먹지 않기로 그들은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술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도 먹고 마신다면 세상과 구별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병통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2. 열흘 간의 시험

단체 생활에서 더구나 왕의 교육생들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거역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책임자인 환관장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들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의 얼굴을 비교하여 자기들의 얼굴이 더 좋으면 자기들의 요구대로 채소와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기간은 열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대조로서 채소가 고기보다, 물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고 마시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채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왕의 진미가 우리의 눈앞에 놓였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특히 한창 자라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 청년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요?

크리스천은 성경이 금하는 음식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열흘간의 실험 결과

1) 다니엘과 세 친구

음식에 대한 테스트 결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나아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재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2) 지혜와 총명에 대한 테스트

3년의 훈련기간이 끝난 후, 그들은 지혜와 총명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는데, 네 청년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열배나 더 뛰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외에 모든 이상과 몽조(환상과 꿈)를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치하는 위치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적은 일부터, 예를 들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정

이승구 교수 예배제재 강경입장



경기도에 이어 지난 3월 20일(금) 서울 시도 예배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움직임

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이승구 교수(한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까지 가장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해온 분체부 장관이 대통령께 이렇게 하려나 된다고 하셔야 한다”라고 했다.

예장통합, 3월 29일 금식기도일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3월 29일을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일’로 선포했다. 총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온 창조 세계에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전국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길 원한다”고 전했다.

북기총 북한 종교자유 없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발림 목사, 이하 북기총)는 지난 3월 20일(금)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와 지하교회 유무 논란에 대한 북기총 입장문”을 발표했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목회자들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한목사의 주장에 대해 “목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북한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가기연 ‘코로나19 방역봉사단’



경기도 가평기독교연합회(가기연, 회장 김성옥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봉사단을 조직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21일(토) 밝혔다. 가기연 방역봉사단은 보건소 및 가평군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기연 문화체육부장 김길식 목사를 중심으로 회장 김성옥 목사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월 18일 신천지의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자들과 여권 관계자들의 ‘안심하라’는 식의 말은 그야말로 공허한 고지체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슈퍼 전파자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시대 가장 극렬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로, 그들의 특수한 종교 의식과 조직원 간 연계를 인하여 급격하게 번지게 되었다. 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진자 7,134명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4,482명이다. 이는 62.8%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또 집단 발병자 5,687명 가운데 신천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9.1%이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여 영남지역은 신천지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독교의 주일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체적 구속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말이 ‘종교’이지 실상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유는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2,3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독교의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주 원인이라 되는 듯한 결정이다. 즉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2월부터 자발적으로 예배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가 많은 방역에 충실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단체와 기존의 기독교를 싸잡아서 강제적인 ‘명령’으로 예배를 중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버리기 바란다.

9일 현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6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신천지의 위장된 신도도 포함된다. 그런데 전 교회에 예배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매우 확실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고 무엇인가?

여기에는 각 언론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자 보도에서 ‘경기도 교회 56% 2천 888곳 집회예배 강행’이라고 보도한다. 교회의 예배는 없던 것을 갑

자기 신설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미 오랜 동안 약속으로써, 계속 드러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강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의로 보인다.

중앙일보도 7일 보도에서 ‘주말 예배 자체 당부했는데 일부 교회는 이번 주도 강행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다. ‘강행’한다는 것은 ‘강제로 시행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를 마치, 일부러 행하는 것처럼 비취치게 하려고 한다.

한겨레는 8일자 보도에서 ‘집단예배 일시 자체 호소에도 일부 교회 강행 논란’으로 이어 논란을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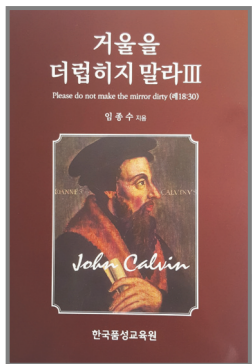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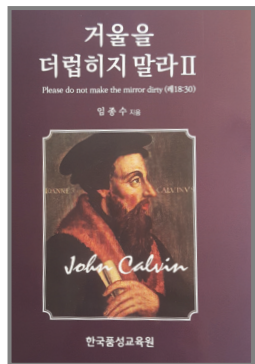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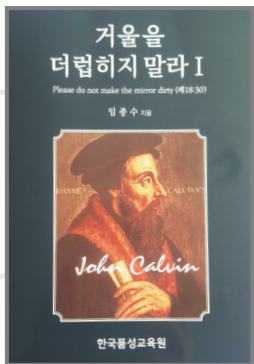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만약 언론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집단 모임으로 간주하여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국민

들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라는 보도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일부 교회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은 외눈박이의 시각이며, 교회를 흠집 내려는 저급한 시도이다.

우리 기독교는 선교 135년 동안 한결 같이 예배를 드려온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마치 교회 때문에 질병이 크게 확산될 것인데, 교회가 일부러 면피(免蔽)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한없이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독교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정부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마치 ‘취락패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목회자 평생교육

김용덕 목사 // 영동제일교회 담임, 교육학 박사

뉴스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

MBC는 지난해 9.28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를 드론으로 조망 촬영, 보도하면서 감찰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국장은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과장했다.

반면, 지난 해 10.3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에는 건국 이래 최대인파가 모였는데도 이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매주 주말에 수만, 수십만 명이 모인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 대부분 언론은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해도 축소 또는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공정성을 잃은 편파보도 역시 가짜뉴스다. (국민일보 2020.3.6. 인창호 전 한별재 판)

위의 사실은 필자 본인이 2019.10.3 성도들과 함께 시청 앞 구국기도회에 참석하였고 거의 보도하지 않은 사실에 현재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나라 군중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정치인의 거짓과 위선에 쉽게 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츨스키와 에드워드 허먼(Edward Herman)이라는 미국 주류 언론은 이렇게 말한다. “언론매체는 소유와 수익 모델의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특정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의제를 왜곡하며 그릇된 세계관으로 대중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회유한다.

그러면서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허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대중은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세상을 진실로 알고 자신도 모든 채 미디어에 포섭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뉴스를 선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츨스키야 허먼은 5가지 틀내세운다.

첫째, 소유권이다. 소유주, 혹은 소유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활용된다.

둘째, 광고주의 막강한 영향력이다. 광고를 내기 위해 협안이 되어있는 언론은 광고주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셋째, 뉴스의 정보원이다.

넷째, 편파(bias)이다. 지배 권력은 언론에 편

죽을 걸고 외압을 가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인다. 다섯째, 반공 이데올로기와 혹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보수주의나 진보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은 권력층의 편에 선다.

미디어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라고 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언론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인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은,

아니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미디어에 있어 문맹(글지 모르는 것=illiteracy)이 되어서는 안되고 미디어에 리터러시(읽고 쓰고 쓸 수 있는 능력=literacy)가 되어야 한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갖춘 미

디어 리터러시가 되려면 어떻게야 되겠는가? 미디어 리터러시 황금규칙을 소개한다.

첫째, 의심하라. 어느 종류의 미디어든 일단 의심하고 보라는 것이다.

둘째, 판단력을 이용하라.

셋째, 끊임없이 질문하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TV 광고만 믿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 알아보고 난 후 결정한다.

넷째,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자기만의 방’에서 빠져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배우라. 젊은 층은 이미 테크놀로지를 잘 배워 생활화하고 있다. 이같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법, 블로그에 글 올리는 법, 유튜브 제작 등을 뛰어 넘어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배워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언론이 이념의 진실을 발견하고 객관적 사실을 말할 때 거짓과 위선은 퇴출되고, 선동하는 정치권력은 견제될 수 있다. 언론이 진실과 사실을 전달할 때 민주시민의 살아있는 양심과 합리적 이성 을 올바르게 작동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아름답게 꽃 필 수 있다.



성경적 교훈

성경적 66권으로 바라본
코로나(전염병)



신구약 66권으로 코로나를 바라보면 역병은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역병은 누가 주는 걸까? 2분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아닐 것 같고 사단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령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신전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는 마귀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안을 했다. 신전지 24만을 갖고 있는 이만희 교주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만행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화계의 도구로 역사하는 것일까? 성경의 66권의 해답은 역병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내려왔다.

1.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의 만행으로 인해 쏟아부은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식민지로 살아갈 때 애굽의 바로왕의 행로는 날로 폭악해 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식민지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너무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피구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출 2:23 이스라엘 조상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만행을 부수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계 8:3-5 말씀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항로에 담겨져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쏟아 부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진노하시 계 8:5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을 준비해서 재앙의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만행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해서 모세를 통하여 쏟아 붓기 시작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역병(코로나)이다. 하루아침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모조리 죽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만 끝까지 강박하므로 모세를 뒤 쫓다가 애굽 백성과 함께 망했다.

2.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185000명을 역병(코로나)으로 죽여 버렸다.

앗수르왕 신헤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자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여세를 몰아 남 유다도 자신의 손에 거머쥐려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평분이 없었다. 그래서 무거운 조공을 받기로 하고 남 유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물질과 자원을 빼앗고 더 무거운 것을 남유다에 요구하니 히스기야 왕은 국가에 국고와 성전에 임한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갖다 바쳤다. 한바탕 남유다 히스기야왕은 알지지가 되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까지 다 한없이 무너진 것이다. 이 틈을 타 앗수르 신헤립왕은 조공을 받지 않으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이다. 거기에 다신헤립은 남유다가 항복하지 않으면 대변과 소변을 먹일 것이며 한쪽 눈을 빼버리겠다고 하니 이러한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만행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신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루 아침에 전염병(코로나)으로 185,000명을 죽여 버렸다.

사 37:36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심판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 남유다 마지막 왕시드기아에게 쏟아 부은 재앙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기도를 많이 해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문에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강박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넣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렘 21:7 역병과 칼과 기근을 준비하여 여기서 살아남는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붙이기로 하였다.

렘 21:7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역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직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4. 신전지 이만희 교주의 만행

오늘날 신전지 만행을 보면 한국기독교가 감당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와 있다. 거짓아 비 신전지 이만희에게 속아서 무려 24만 명이나 걸려있고 수로 대가자가 30만을 유박한다니 누가 이 만행을 감당하겠는가? 가정이 깨져나가고 젊은 청년들이 거짓에 속아 이만희 교주에게 젊음을 바치고 사회를 거짓으로 뒤덮어버리고 지식을 잃어버린 젊은 부모들은 거리에서, 이만희 별장에서 절규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기만 놔두겠는가? 계 16:2에는 하나님의 재앙의 7대점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자에게 퍼붓는다고 기록했고 계 16:10 하나님의 진노의 다섯 번째 대접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붓는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중국 사회주의 권력 형태와 우한지역 교회 폐쇄, 홍콩주민 인권 말살 만행도 연구해야 한다.

5. 오늘날 코로나 재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바로의 만행으로 역병을 준비했고 앗수르 신헤립 사건도 신헤립 만행으로 역병을 준비했고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만행으로 인해 전염병을 준비했다. 성경 66권을 다 찾으면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사건에서도 역병을 준비했고 아브람 아내 사래를 빼앗은 바로의 만행으로 큰 재앙을 준비했다. 솔로몬에게 만약에 역병이 발생하면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게 돌아져 감미하며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늘날 코로나 역병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냥 믿음의 기도가 상달된다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멈춰라. 코로나여 멈춰라. 태풍아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인간의 만행을 이변 기회에 얽매 달라고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까? 요즘 방송설교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는 사단이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떠벌리는 내용들이 젊은 청년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별력이 어디까지 없을까?

2020. 3. 18
순복음약속교회 신자섭 목사

냉난방기 멸균 세척 및 방역 도와

클라우드오투, (사)해돋는 마을에 무료 봉사 진행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무료 급식소들이 급식을 중단해 급식소의 중심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독거 어르신 분들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쪽방촌과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사역을 20년 넘게 선거 오고 있는 (사)해돋는 마을(이사장 정현일 목사)의 엘드링노인대학(학장 최애스터 신한대 교수)은 지난 3월 5일(목) 냉난방기 멸균세척 전문가인 (주)클라우드오투(대표 송창재)의 후원으로 멸균 세척 및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비해 재 급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생명나눔교회와 해돋는 마을은 쪽방주민 및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대체식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사장 정현일 목사는 최근 해돋는 마을 무

료 급식소 안에 설치된 냉난방기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19 에어로졸 감염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냉난방기 세척과 방역 필요성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거준 클라우드오투 송 대표에게 감사를 전했다.

냉난방기 멸균 세척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내 난방기 세척 및 Total Cleaning Service 전문 업체인 클라우드오투이다.

시스템 냉난방기는 오염된 물방울과 먼지 등을 빨아들이 뒤 재배출하면서 바이러스를 에어로졸 형태로 내뿜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청소나 멸균작업이 어려워 지금까지 시작지대로 받치며 왔다.

에어로졸 감염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에어컨, 난방시설,

공조설비 등에 대한 멸균세척이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클라우드오투는 최근 서울 소재 전문 종합 병원 대상 냉난방기 멸균세척 및 코로나바이러스 사전 예방 소독의 일환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세척을 완료한 전문기업으로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을 섬기는 해돋는 마을에 지속적인 세척과 방역으로 봉사하기로 협의했다.

(주)클라우드오투는 에어컨 자동 세척장비(로봇)를 국내 및 세계 최초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분당서울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호텔,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유치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사업 군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세척 및 종합 클리닝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압정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한영집 부사와 교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님)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0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4월 2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8일

알림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30일(월) 예정되었던 제68-5회 실행위원회를 4월 27일(월)로 연기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코로나와 예배 팩트체크 피해 접수 공동대응한다

한국교회언론화(대표 유만석 목사)는 3월 22일 주일 오전에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일정부분 교회에 돌리고자 교회의

사례를 예국 보도하거나 집중 조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론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점들을 팩트 체크하려고 한다.

▲코로나와 개신교예배 팩트체크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대응 및 피해접수를 받는다.

코로나와 개신교예배 팩트체크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대응 및 피해제보를 받습니다!

1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들 팩트체크

- 1 종로구 명동교회: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
- 2 이스라엘 성지순례: 개신교 사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열자 가족 신천지 편명
- 3 강동구 명성교회: 부목사 및 교회집사들, 성동구청 여직원 등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 받고 4일 만에 퇴원조치 되어 반장 논란. 교인 전원 음성, 교회 감염 없음
- 4 부산 온천교회: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종동목사에 의한 감염
- 5 대구 성동교회: 교회 중직의 부인으로 위장했던 신천지 이종동목사에 의한 감염
- 6 천안 사례: 천안 마르티노스 강사가 참석 한 기독교복음선교회라는 교회는 이단 JMS
- 7 거창 거창교회: 이단 구원파의 한 분파
- 8 광주 양림교회: 예배집속자 모두 음성
- 9 광명 함께하는교회: 부목사 가정 외부에서 감염되어 예배 참석했으나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 예배집속자 모두 음성
- 10 수원 생령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화석, 화의를 통해 감염
- 11 동대문구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예배로 대체했던 교회, 예배가 아닌 수련회에서 발생
- 12 과산 장연교회: 교회가 아닌 장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 수정됨
- 13 성남 은혜의강교회: 이단성 사비가 있었 교회, 신천지의 집중포고 대상이었었 것으로 알려짐

2 결론 및 법적 검토

- 1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 보다 훨씬 낮은 수준)

3 교회의 대응과 기도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대하시되 위안적 언행은 꼭 활용하시고 피해사례를 피해상담센터 (pnedwmm@gmail.com)에 제보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례로 고통 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며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https://bit.ly/코로나기도>

141 한국교회연합회

포커스 / 총신대 이상원교수 징계반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 항문성교의 의학적 문제점 지적일 뿐 —

2020년 3월 13일(금)에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을 듣고, 긴급하게 53명의 목회자들이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성명서)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2019년 수업 중에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을 일부 학생들이 성하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항문에 성기가 삽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여성 성기는 남성 성기의 삽입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험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신대 성하통·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에 이상원 교수 강의내용은 성하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2019년 12월 26일에 위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부당합니다.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2020년 1월 16일에 총신대재단이사회는 “2020. 1. 14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

문” 및 “2020. 1. 16자 동반연 등기자회전” 등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전연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이상원 교수의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반연 기자회견은 이상원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한 것이며, 노회장 입장문 발표는 노회장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 공식 가구인 성하통/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징계불회부 결정을 존중해서 재단이사회는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총신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아온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이상원 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목회자 모임
(동침 목회자 명단, 가나다순) 총 578명

미성년학생 성희롱 총신대 신대원생

총신대와 시무교회 철저한 처리 촉구

유튜브 방송 ‘데인보우리턴즈’ 운영자 염안섭 원장은 2020. 2. 19자 방송을 통해,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지학 중인 모 전도사(이 사건 전도사)가 자신의 시무 교회에서 교회내 미성년 학생(이 사건 미성년학생)을 무려 4년간 지속적으로 동성적 구애활동을 하며 괴롭혀 왔고, 이러한 동성 성하통에 참여하던 피해학생이 휴임 모 강도사(이 사건 강도사)에게 고통을 토로한 것이 염 원장에게 전달되어 왔다고 공개하였다.

염 원장은 한국교회 안에 미성년 목양 대상자를 상대로 한 동성 성하통 실태가 있었음을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알려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피해자 학생의 이름이나 제보자 강도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가해 전도사의 실명과 그 전도사가 성하통을 행한 교회를 떠나 최근에 부임하여 시무하던 대형교회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데인보우리턴즈 방송을 통해 위 총신대 신대원 전도사의 성하통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에 의해 폭로되자 이 사건 가해 전도사나 이를 두둔하려는 세력들은 염 원장의 공개 방송이 허위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4년간 시무하며 성하통을 행했던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당회, 담임목사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담임목사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강도사에게 사직서를 종용하였고 지금은 사실상 해임된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가해 전도사가 최근에 부임하여 시무하던 대형교회는 가해 전도사를 단순 사직 처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해 전도사 소속 총신대 신대원은 학교 직원에서 아무런 입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총하성하통 성하통 근절을 표방하며 총신대 신대원 교수자 강의 중에 동성성행위가 이성성행위에 비하여 보건적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차이 있는지 설명한 것을 성하통으로 낙인을 찍어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성하통 가해자임이 너무도 명백한 이 사건 가해자인 전도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나 제보자, 또는 공개자가 문제라는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교회 목양 현장에서 전도사 등 목회자들에 의한 미성년 목양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이성 성하통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에 의한 미성년 목양 대상자를 상대로 한 동성 성하통은 더욱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미성년 대상 동성 성하통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최우선적 가치로 하여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단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한동협의 입장임을 밝힌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해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들, 4년간 성하통이 발생했던 교회와 최근에 시무하다가 사직했던 대형교회는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있었지만 마땅히 철저한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사

안을 파악한 뒤에,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의 장기간 미성년 목양 대상 학생을 상대로 한 동성애적 성하통임을 확인하고, 교회 정관과 규칙, 교단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만으로도 동성 성하통이 분명하며, 상대가 미성년 학생이므로 상호간에 성적인 호감을 나눈 것이라는 평가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책임을 묻는 처리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가족, 제보한 이 사건 강도사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교회의 명예 훼손반을 고려하는 행동은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서 엄금되어야 한다. 오히려 교회는 피해자 측에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합당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사과하고, 추가적인 부담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보자인 강도사를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2차 가해행위이다. 이 사건 강도사에 대한 해임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시무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 사건 전도사가 소속된 총신대 신대원에 이번 성하통 사건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신대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교적에 의거한 합당한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전도사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양육하고 있는 총신대 신대원은 이 사건 전도사의 성하통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및 제보자의 증언이 나온 이상 즉각 철저한 사실조사와 합당한 교적에 의거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성하통 근절을 표방하며 정상적인 강의 내용조차 성하통으로 낙인찍었던 총신대의 총하성하통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하통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성하통 근절을 표방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해야 한다.

성하통 근절을 표방하며 정상적인 교수 강의도 무리하게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에 회부한 총신대 정용덕 관선 이사회 역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속 신대원생의 성하통 사건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조사기구 구성, 징계절차 진행을 개시함이 마땅하다.

성경적 건학이념에 의하여 건립된 총신대는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하통,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 성하통 사건이 소속 대학원생에 의하여 4년간 발생해 왔다는 이 사건에 마땅히 주목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교단 헌법, 학교 정관과 교적에 합당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 보호하고 동일한 성하통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

총신대가 너무도 명백한 미성년자 성하통 사건은 외면하거나 덮으면서, 정상적인 동성애반대 강의를 성하통으로 모는 반이성적, 반성경적, 반헌법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동협은 양심을 가진 국민들과 성경을 믿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쳐 총신대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운동과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3. 4.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활오일, 삼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영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원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지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 (운동전후손전지/수향성/검무지적지)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피땀향수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피땀향수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세어버터, 마카미네이브오일등

⑨ 젤뮬케어 립밤 (15ml)

-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러운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감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故 정현숙 권사 뇌사, 5명에게 새 삶

50대 정 권사, 생명나눔 홍보활동에 앞장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장기기증을 통해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세상에 남기고 떠난 이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3월 12일(목), 큰은혜교회(담임목사 이규호)를 섬기던 뇌사 장기기증인 故 정현숙 권사(61세, 여)의 사연을 공개했다.

정 권사는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생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던 정 권사의 뜻을 존중해 가족들은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 17일, 정 권사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 신장, 각막 등의 장기를 기증해 5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선물하며 세상을 떠났다.

정 권사는 생명나눔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영동지부의 초대 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길영 목사(현재 복지교회 시무)의 여동생이었던 정 권사는 정 목사와 함께 본부에서 근무하며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펼쳤다. 당시 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도 참여하며 생명나눔 운동을 열심히 응원해왔다. 그리고 지난 17일, 정 권사는 생전의 약속을 지키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작별인사를 고쳤다.

정길영 목사는 “여동생은 평소에도 장기기증 캠페인에 앞장서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왔다.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나눔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여동생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누군가의 삶과 생명이여동생을 통해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동생이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동의해 준 여동생의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고맙다.”라는 말을 전했다.

한편,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고인의 고귀한 생명나눔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보라매 병원 정례식장에 위치한 빈소에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는 근조기를 세웠다. 19일 오전 8시에 발인예배가 드려졌으며, 본부 박진탁 목사가 추모사를 통해 조문객들과 함께 고인의 숭고한 나눔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시국에 숭고한 결정을 내려준 유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본부와 생명나눔운동을 함께 이끌었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킨 고인의 사랑과 희망을 잊지 않았다. 아름다운 기적의 소식을 들려준 기증인의 사랑이 온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ACTS 외국인 신입생 선발 OT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9개 나라 19명 선발

사람을 세우고 열방을 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가 설립 목적을 따라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9개 나라 19명을 선발했다. 19명의 신입생 전공은 목회학석사(M. Div.)에 10명, 신학석사(Th. M.)에 4명, 석·박사통합과정(Th. M. + Ph. D.)에 3명, 박사과정(Ph. D.)에 2명이다.



이들을 위해 국제교육원에서는 3월 12일(목)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을 고려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전 학생의 손 소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으며, 전반적인 학사 일정과 수강신청, 체류, 가족사, 도서관 이용, 한국에서의 신변 변경사항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특히 한상화 대학원장의 환영 인사와 김다니엘 교학처장의 ACTS 신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도덕적 윤리 등에 대한 강연이 계속 이어졌다. 졸업 후 이들은 지국의 복음화 및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현재 ACTS에서 유학중인 학생 수는 21개 나라 62명이 학업 중에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할때 받은 은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역전광장이나 인구 도로의 사거리 버스 안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하게 하시며 방황하는 자상제받고 해매는 자들이 돌아오며 병원에서는 환우들에게 위로하고 영접시키고 복음의 나팔수로 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회화를 옮기게 되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있던 중 경찰방송 TV에서 가족세트전도 왕 박영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전도의 불을 지피주셨고, (사단법인)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168기 생으로 입학하여 12주 과정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가며 실제 전도 교육을 받아 이제는 어디를 가나 전도에 자신감이 붙어 능력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소극적인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접기도를 따라하게하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교파까지 붙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세트전도 하계동 지부장으로 발탁이 되어 전국투어의 가수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우산 속에서 영접기도를 하는 능력전도 요 1:12 말씀을 선포하고, 마 28:18 말씀처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고 말씀으로 하는 능력 있

는 전도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전도할 때 긴 세월 동안 시뻘뻘 잇몸이 치료되었습다. 얼굴이 통통 부으며 옆쪽처럼 부스르기가 나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치료할 것을 믿고 전도할 때 기쁨이 오고 믿음이 확실해 지면서 지금은 전보다 더 고운 얼굴로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는 곳이면 영접기도와 전도로 황폐하고 지쳐 쉼을 얻고자하는 심령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모실 때 하늘에서는 전지가 열릴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미하고 믿음의 피곤함을 모르고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짐으로 돌아올 때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다짐해봅니다.

가족세트전도 서울 하계동 지부장 박보배 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구세군,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

마스크는 환경미화원 등 서비스 종사자에게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이하 구세군)이 지난 3월 13일(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19일(목)까지 7일 간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박창희 사무총장은 “구세군 자선냄비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아지는 곳이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시민 분들의 마음 덕분에 거기에 나설 수 있었다.”라며, “오늘부터 구세군 자선냄비는 거리를 지나는 국민 분들의 마음을 다시 담아, 매일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지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나누려고 한다.”라고 캠페인의 취지와 함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경비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국민들이 여분의 마스크나 위생용품을 자선냄비를 통해 기부하며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나누는 캠페인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서울 광화문 잠실 롯데타워 2

곳(13일~19일), 부산역 앞 광장(13일), 부산서면역 광장(19일), 대전역 서광장(17일~18일)에서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된 마스크와 위생용품은 구세군을 통해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된다.

제이씨코리아, 1억원 성금 월드비전에 전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 위해

글로벌 네일 브랜드 데스디비틀 운영 중인 주식회사 제이씨코리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지난 3월 13일(금)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월드비전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과 의료

진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지리를 잃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 70여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며,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에 절실하게 필요한 방호복 1,000여 벌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데스디비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취약

계층 가정이 생계를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번 성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더욱 더 고난을 받게 될 취약계층 아동 가정과 바이라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전달되어 전대미문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여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500ml
20개들이 20,000원
500ml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문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중은교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랑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계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한 목사 (영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영제일교회)	 임용계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시김전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진영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문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영광 목사 (인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사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철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계순 목사 (순복음침중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박홍원 목사 (오성사당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규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경교회)	 최남수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전주순복음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희숙 목사 (신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영교회)	 배광관 목사 (순복음진원교회)	 옥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서 목사 (예수왕기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교회)																



예스교대하하하
나이사히
브흐사히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단상 하나

봄비가 내리면 뭘 하리
산들바람이 불어도 뭘 하리
추억이 감당 못할 산을 넘어와,
볼을 적시고, 눈을 감겨도
사랑이 없으면 뭘 하리.

나,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고픈데.....
먼 산에 동 트고, 시간 지나면
뜨거워질테지.

풍선을 불어 하늘로 날려 보렴
두 손으로 지구를 떠받치고 세상을 보렴.
모든 기억을 지우고,

가슴 없는 허수아비를 닮아 웃어 보렴.
춤을 추어보렴.
박자 없는 음악이 좋는데.....

바람을 잡고,
구름 위를 뒹굴어도, 헛되고 헛됨은
내 많이 어리석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세월들이여라.



스쳐지나는 생각을 붙잡고
이제인 쏜

경기도, 기원제는 되고 예배는 안 된다 지적 제기

한국민족촌 22일부터 4주간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예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민족촌에서 열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중 한 관계자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종교 탄압 수준의 조치를 하면서 이러

한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다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 했다.

한국민족촌 측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족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는 기원

제를 지낸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3월 22일(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 민족촌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민족촌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민족 전통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민족촌 전통 공연단의 농악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염원하는 행사”라며 “달집태우기는 생솔기지나 나뭇더미를 쌓아 올려 ‘달집’을 짓고 불을 놓아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풍속행사로써 주로 정월대보름 무렵에 진행된다고 한다”고 했다.

경기도 한 시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토속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은 처사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배는 안 되고 기원제는 된다는 것이냐”면서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 상실이다”고 덧붙였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 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d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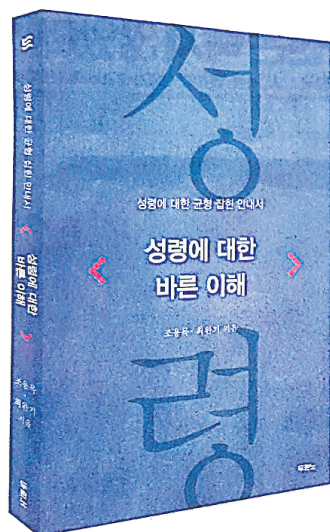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 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여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 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 나 '은사주의' 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저 자 조용목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 자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